



가보니 성전사

이니스트라드에서 인간들은
항상 사냥당해 왔지만, 낮이
짧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것들이 밤의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천사들은
사라졌다. 우리를 지켜줄 자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인류가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이다. 그러니
검을 들어라. 우리는 함께 이
부자연스러운 어둠을 끝낼
것이다.



볼다렌 흡혈귀

이니스트라드의 밤 만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감춰 주는 그림자,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산들바람을 타고
실려 오는 뚜렷한 공포의 냄새들.

밤은 우리의 시간이고, 이제
곧 그 밤이 영원해질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라고는 월은으로
만든 물건이 전부입니다.

이 열쇠를 발견하면, 흡혈귀
가문들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수사슴 집회

영원한 밤이 이니스트라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밤이 드리워지면, 인류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과 생명으로부터 힘을 끌어내는
우리는 이 어둠의 물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울벤왈드의
심장부에는 고대의 힘이 깃든
장소인 셀레스투스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확철 의식을 되살려내고 다시
한 번 낮과 밤의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토볼라르의 포효때

아우우우우우우우우!
들었나, 친구? 사냥이 부르는
소리지. 밤은 매번 찾아올 때마다
더 길어지고, 우리 동족은 더
강력해지지. 포효때는 이미
케시그의 숲 속에 모여들고 있고,
곧 우리는 이니스트라드에서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멕이사슬의 정점을 차지하게 될
거야. 사냥감이 되기 전에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을 걸!